

- 다시 '지보의'를 이어받으며

- 보건소에서 지역의 주민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소신 있는 삶'을 희망하는 일군의 공직의사들이 생경한 환경에서 비릇된 외로움을 이겨 내고자, 1994년 5.14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지보의)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희망대로 자신들의 삶을 지역에서 살아내고 지역보건의료 현실을 개선하고자 상당 시간 노력하여 왔습니다. 사회경제적 발전이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하여 낙후되거나 늦어지는 곳에서 국가발전에 상응하여 늘어나는 지역보건의료 요구를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직무 심화와 확장에도 힘껏 노력하였습니다.

- 지보의 회원들은 보건소장을 넘어선 새로운 지역보건의료 관련 직업들에 진출하는 등 변화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역량 축적에 잠깐씩 성공하기도, 잠깐씩 현실에 좌절하면서 30여년 이라는 한 세대 동안 지역보건의료 개선에 분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중심 지역보건 전문직 의사 공급의 선순환 구조 구축,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지역보건행정인프라 토대 마련까지는 달아보지 못한 채 '지보의'는 사회 환경 변화의 폭풍에 기운이 쇠하여 좌초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보의 역량의 한계라는 지적을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지역보건의료 개혁'이라는 지역보건의료에 종사하던 온전한 우리 자신의 문제를 관심도 의지도 없는 '중앙정부에 협력·의존해야 해결 방법을 모색 할 수 있다'는 '외로웠던 초기 지보의 생각'이, 그 생각을 미련하게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잘못이 아니었는지 강력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선의와 역량에 의존해야 지역중심의 합리적 보건의료체계가 가능한 환경과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세월만 허송하게 했다는 일말의 깨달음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많은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연유에서든, 쇠하여 기운이 다한 지보의를 창립 멤버들인 우리가 다시 이어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뼈아픈 각성에 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래서 팍팍한 노년의 삶으로 내몰렸다는 핑계로 후배들에게 미루었던, 달아보지 못한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강고한 '중앙정부(복지부)중심의 현행 국가중심 보건행정체계를 지역중심 보건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운동을 갖은 힘을 다해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보건의료 개혁이 가능한 지역보건의료 개혁의 출발선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0년이 넘는 우리의 지역보건의료 경험과 기억을 되살리고 제 학계와 지역의 다른 지역 전문인들과 협력 연대하여 지역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고, 구조적 변화가 가능한 지역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상하고 그것으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민들과 함께, 연륜으로 습득한 모든 지혜와 수단을 다하여 중앙정부와 국가에 이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 동지들이여 보건의료 지방분권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